

주일가정예배

2022년 2월 13일 주일예배

인도: 가족 대표

기 원 인도자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 지어다. (시편 22:23)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자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노래할 때 하늘 문을 여기고 기쁘게 흠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사,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을 향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경외하는 모든 이들에게 자비와 회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191장 다같이

1.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2.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 입어
그 발 앞에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3.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맘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4.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둔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후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기 도 가족 중

성경봉독 사도행전 2장 1~4절 인도자

1.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설 교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의 임재』 인도자

기 도 설교자

찬 송 197장 다같이

1.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2.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케 하여 주옵소서
 3.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4.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써 오늘도 임해주옵소서
- (후렴)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써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주기도문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 광 고 】

1. 코로나19의 빠른 종식과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헌금안내
※중앙교회 공식계좌로 이름과 헌금종류를 적어 송금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예) “이름+감사” / “이름+주일” / “이름+십일”
※중앙교회 공식계좌: 기업은행 022-046724-04-012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중앙교회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의 임재

사도행전 2:1-4

우리는 부흥을 갈망한다. 참 신앙이 희귀해지거나 말씀이 희박해지고 하나님의 등불이 사라질 위기에 처할 때, 성령님의 불가항력적인 능력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영적 죽음의 상태를 분별하고 애통하며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신다. ▶1859년 부흥운동은 1904년 부흥운동의 진원지다. 웨일즈 지방에서 전개된 복음적 부흥운동은 웨일즈와 영국 전체의 신앙생활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쳤다. 1859년 성령의 강한 임재로 11만 명이 회심했다. 데이비드 모건 집회에서, 어떤 노인이 '기도하기 위해 밤잠을 자지 않겠노라' 다짐할 때 오연도 동조했는데, 그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재하여 함께 있던 사람들을 감동 감화시켰다. 오연은 20살이었는데 그를 통해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다. "나는 아주 어릴 적부터 많은 성경 구절을 열심히 암송했는데, 그 구절이 내게 말을 걸어오기 시작했다. 나는 교회에 있을 때 가장 큰 기쁨을 느꼈다. 좋은 설교를 들으면서 종종 그랬듯이, 그 설교가 권능으로 가슴에 와 닿을 때, 그리고 때때로 타락한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려는 소망을 도저히 뿌리칠 수 없을 때, 나는 내 자신을 주체하지 못하고 흐느껴 울 수밖에 없었다." ▶토마스 선교사의 아버지 로버트 토마스도 1859년 웨일즈 부흥운동의 영향을 받았고, 그 아들 토마스를 선교사로 이끌었다. 1863년 토마스는 하노버교회에서 목사 안수와 선교사 파송을 받아, 4개월의 항해 끝에 상하이에 도착했다. 그는 스코틀랜드 성서공회 소속으로 조선에 성경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첫 번째 조선 선교는 성공적이었다. 1865년 9월 4일 즈푸에서 출발해서 9월 8일 백령도 도착했고, 전도했다. 성경의 비결은 뛰어난 조선어 실력 덕분이었다. 1866년에 병인박해가 일어나 천주교도가 대량 학살되었다. 토마스는 이에 굴하지 않고 미국 상선 제너럴서먼호를 타고 성경 전파 사역을 계속했다. 1866년 8월 17일 평양 대동강에 도착한 그는 9월 5일 박춘권에 의해 참수당하여 27살의 짧은 생을 마감하였다. 박춘권은 그가 순교하면서 건네준 성경을 읽고 신자가 되었다. 토마스 시신은 수습할 수도 없었고, 그의 묘도 없었다. 하지만 그가 뿌린 성경으로 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의 사역은 존 로스 선교사가 이었다. 로스는 한국인 지도자를 양성하고 한문성경을 한글로 번역해서 성경전서를 만들었다. 육로와 기선을 이용하여 쪽복음서와 사도행전, 소책자를 전달하며 복음을 전파했다. ▶1904년 웨일스에서 또다시 부흥운동이 일어났다. 에반 로버츠는 26세의 광부였다. "나는 스스로 다짐했다. 꼭 성령을 받을 거야. 그래서 굶은 날씨와 온갖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집회에 꾸준히 참석했다." 당시 영국은 독일로부터 자유주의신학과 고등비평이 유입되고,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위력을 발휘했다. 심리학은 회심을 생물학적 반응으로 치부하고, 문학은 무신론적인 사상을 확산시킴으로써, 교회는 생명력을 잃고 병들어 갔고,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성령의 불길이 웨일즈에 임했다. 로버츠는 1904년 9월 29일 집회에 참석했다가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 로버츠는 고향 모리아 예배당에서 청년 17명에게, 웨일즈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들려주었을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해 참석한 17명 모두가 큰 은혜를 받았다. 11월 1일부터 매일 진행된 로버츠 집회에 사람들이 몰려왔고 성령이 강하게 임했다. 1개월도 지나지 않아 웨일즈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웨일즈 부흥소식은 1906년 9월 한국을 방문한 존 스톤을 통해 알려졌고, 선교사들과 지도자들에게 강한 자극을 주었다. "누가 이곳에서 부흥의 주역이 될 것인가?"라고 물을 때, "저요"라고 대답한 사람이 길선주였다.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작이었다.